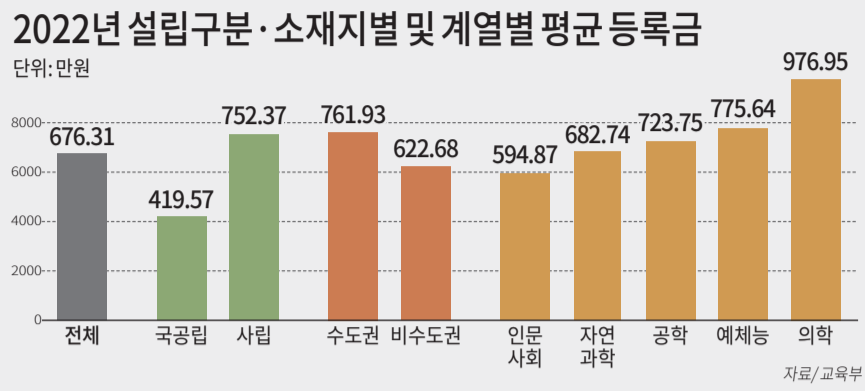


올 4년제 대학 등록금 평균 676만원... 180곳, 93% '동결'

교육부, 194곳 4월 정보공시 분석
작년 674만원비 1만8400원 늘어
예체능·공학계열 정원 확대 영향
경동·경주·세한대 등 6곳 '인상'
입학금 평균 7만2000원, 59% ↓



올해 4년제 대학생의 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으로, 전국 194개 4년제 대학 중 97%인 188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절대평가 실시 대학이 늘어나며 이른바 '학점 인플레이' 현상은 여전히 이어졌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4개교 대상 '2022년 4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을 1일 발표했다.

◆올해 4년제 평균 등록금 '676만 3100원'...예체능·공학 입학자 늘어

올해 4년제 대학생의 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으로 지난해(674만4700원)보다 1만8400원 늘었다. 정부 정책에 따른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도 등록

금이 비교적 비싼 예체능·공학계열 입학 정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4개교 중 96.9%인 188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렸다. 동결한 대학과 인하한 곳은 각각 180곳(92.7%), 8곳(4.2%)이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경동대, 경주대, 세한대, 영남신학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등 6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대학 등록금 인하·동결 노력에 따라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사업에 올해 참여할 수 없다.

대학 계열별 정원은 인문사회가 48만 3403명으로, 지난해보다 5666명 줄었

다. 반면, 공학계열은 37만870명으로 1219명 늘었으며, 예체능도 14만8255명으로 지난해 대비 1408명 늘어났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76만 9500원) ▲예체능(775만6400원) ▲공학(723만7500원) ▲자연과학(682만7400원) ▲인문사회(594만8700원) 순이다.

대학별 등록금을 살펴보면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가,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대학이 높게 책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2만3700원으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419만5700원보다 332만8000원 높았다. 사립대와 국·공립대 등록금 격차는

지난해(330만100원)보다 2만원 가량 더 벌어졌다.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761만9300원, 비수도권은 평균 622만6800원이다.

입학금은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했다. 올해 4년제 대학 입학금은 평균 7만2000원으로, 지난해 (17만3800원)보다 58.6% 감소했다. 입학금 폐지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평균 입학금은 63만7000원으로, 이와 비교해 88.7% 줄었다.

올해 고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부터는 법에 따라 모든 대학의 신입생 입학금이 폐지된다. 현재 4년제 사립대 중 입학금을 걷는 대학은 65개교다.

◆학생 2명 중 1명은 A학점...전임교원 강의 줄고 강사 강의 늘어

대학가에서 지속해서 지적되는 이른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됐던 지난해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4개교 재학생 83.4%가 A나 B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A학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47.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A·B학점 취득 비율은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11%p 이상 높았다.

2020년 B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87.5%로, 지난해는 이보다 4.1%p 낮아졌지만,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71.7%)보다 11.7%p 더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수업이 줄고 절대평가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대면 수업이 늘면서 이처럼 높은 학점을 받는 비율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학기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1%로 지난해 1학기보다 1.0%p 감소했으며, 강사의 강의 비율은 21.4%로 같은 기간 0.4%p 상승했다. 설립 유형과 소재지별로는, 국공립대(62.7%)보다는 사립대(67.2%), 수도권(61.4%)보다는 비수도권(69.2%) 지역 대학에서 전임교원이 강의를 맡는 비율이 높았다.

높은 교육 질을 보여주는 지표인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9%로 지난해 1학기(37.6%)보다 1.3%p 높아졌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어린이날 100주년... 체험행사·공연 풍성

서울시교육청, 5월 프로그램 다채
'도서관, 어디까지 놀아봤니?' 등
곳곳서 각종 놀이·체험·공연 마련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전시회를 개최한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은 5월 한달 내내 체험행사와 공연, 전시 등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도서관은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어린이주간 '도서관, 어디까지 놀아봤니?'를 운영하고, 도서관 앞 야외놀이터에서 각종 놀이, 체험, 공연 등을 진행한다.

정독도서관은 3일부터 어린이날 100주년 특별전 '장난감으로 만나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통해 레고로 보는 독립운동가 전시와 가족 단위로 함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도봉도서관은 2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선언문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한다.

동작도서관은 3일과 4일 이틀간 만화가 책을 든 어린이를 그려주는 '어린이날 100주년 캐리커처 그려주기' 행사를 연다.

용산도서관은 4일부터 31일까지 소파 방정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정환 도서·동요·동시' 전시를, 영등포평생학습관에서는 1일부터 4일까지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를 주제로 도서 두 배 대출, 나만의 책 추천 등을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예정이다.

이밖에 ▲제34회 가족백일장(고덕평생학습관) ▲이야기가 있는 코딩(고덕평생학습관) ▲우리, 같이 문화다양성 생각여행(노원평생학습관)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마포평생학습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그림책 시간(영등포평생학습관) ▲박현숙 작가님과 함께하는 '수상한' 이야기(강남도서관)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금쪽이 영어 독서 코칭(강동도서관) ▲청소년 멘토와 함께하는 꿈 찾기(강서도서관) ▲오늘은 내가 주인공(개포도서관) ▲공기정화식물로 지구지킴이(고척도서관) ▲책 소풍 가는 날(구로도서관) ▲우리 가족 비누 만들기(남산도서관) ▲가족이 함께하는 필사 동시 낭송회 등(동대문도서관) ▲2022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 이수지 작가 작품전(서대문도서관) ▲어린이날 100주년, 새로운 책 놀이터에서 행복한 우리들(송파도서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대출 행사(양천도서관) ▲도서관에 놀러온 무민 전시회(정독도서관) 등 도서관·평생학습관별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



혼합현실 기술을 적용한 CAU XR 스튜디오 개소식 모습. /중앙대

중앙대, 실시간 렌더링 XR 스튜디오 구축

소니코리아와 협력
국내 대학 첫 'CAU XR 스튜디오'

중앙대학교가 소니코리아와 협력해 국내 대학 최초로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한 XR(확장현실)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중앙대는 지난달 28일 서울캠퍼스 310관(100주년 기념관)에서 'CAU XR 스튜디오'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CAU XR 스튜디오는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등 혼합현실 기술을 아우르는 초실감형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시설이다. 살아 숨 쉬는 정교한 배경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적용

해 학습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실감형 콘텐츠 기반 고품질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번 CAU XR 스튜디오 개소를 통해 중앙대는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갖춘 대학가 최초 사례가 됐다.

CAU XR 스튜디오는 성공적으로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 지원으로 마련됐다. 4K 레디 스튜디오 카메라로 프로그래시프 포맷, HDR 포맷, 4K 업컨버팅 출력이 가능한 소니코리아의 HXC-FB80 카메라와 4K 프로덕션 스위치가 XR 스튜디오에 설치됐다. /이현진 기자

한신대 창업보육센터 '대학 창업지원 사업' 선정

한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디홀로비전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 창업지원 사업'(이하 대학 창업지원 사업)에 최근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의 산학협력을 통해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신대 창업보육센터는 경기남부 특화산업분야인 광학, 콘텐츠, 생명공학, 전기전자 중 콘텐츠 분야로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한신대 창업보육

센터는 '특화산업 육성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디홀로비전은 '3D 홀로그램 응용솔루션 기반 실감형 광고 매체 개발' 과제를 진행 한다.

한신대 창업보육센터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기술닥터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사업화 연계 ▲산학관 네트워킹 프로그램 ▲투자역량 강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구성해 창



김태홍 (주)디홀로비전 대표가 '3D 홀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신대

업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송실대 스포츠학부, 생활체육 활성화 나서

동작구민체육센터와 업무협약

송실대학교 스포츠학부가 최근 동작구민체육센터와 지역사회 협력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실대 오세이 스포츠학부장, 김대훈·오경아 스포츠학부 교수, 동작구민체육센터 김인수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돼 있던 지역 생활체육 발전과 동작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었다. 더불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송실대 스포츠학부 학생들이 스포츠 현장 실무능력을 증진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현진 기자